

# 몽골 유목민의 불 민속

사람이 다르면 인정이 다르고, 인정이 다르면 민속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불을 어떻게 인식하고, 불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 하는, 민족 저마다의 민속행위를 주목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불은 본디부터 인간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이 함부로 다 가설 수 없는 변화무쌍한 변물(變物)이었다. 그렇기에 불을 '그 어떤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신성을 덧붙여 숭봉하는 태도는 모든 문화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아마도 불을 얻는 데 소요되었던 노력과 그 노력의 깊이에 따른 지혜의 축적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일까. 한편으로는 숭엄한 사건을 서술하는 신화(myth)로 기억되고, 한편으로는 굳건한 신앙의 대상으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테면 원초적인 신성(神聖)을 지닌 존재로서 엄중한 신격(神格)으로 숭신되기도 하고, 특별한 의례로 해마다 반복되며 규범과 도덕률로 일상을 구속하고 있다. 일상에 가까이 있되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장엄(莊嚴)인 것이다. 몽골 유목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그 양상과 의례의 세부 모습이 다를 따름이다.

글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본디의 뜻은 조왕신앙과 관련이 있는 몽골의 불 제사

몽골에서 행해지는 의례 가운데 불과 관련된 중요한 의례는 뭉니 뭉니 해도 화제(火祭)다. 말 그대로 불에 대한 제사인데, 우리의 조왕신앙과 비슷한 점이 많다. 불의 신과 부엌신인 조왕과의 관계가 뚜렷하고, 각 가정의 취사공간인 화덕과 부뚜막에 좌정한다는 점도 그렇다. 그리고 특정 기간 좌정한 곳을 떠나 천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방식도 같다.

몽골 유목민은 12월 24일에 불의 제사인 화제(火祭)를 지낸다. 12월 24일은 불의 신인 '갈딩 보르향'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가는 날이다. 때로는 몽골의 화신(火神)을 여신으로 보기도 하여 '어머니(에흐)'라는 애칭을 달아 '갈딩 텅게르 에흐(불의 하늘신 어머니)'라는 여성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다. 불의 신은 각 가정의 화덕에 상주하며, 가족에게 행복과 안녕 및 흥성을 가져다주고, 혈통을 잇게 해주는 신이다.

몽골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말 중에 '불이 꺼졌다'는 표현이 있다. 화덕의 불씨가 꺼져버렸다는 말로 후손이 없어 대가 끊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싸움을 걸거나 싸움의 의지를 다질 때 "화덕의 불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복수하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곧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불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불의 신은 깨끗함을 상징하고 모든 더러움과 역병을 소멸시켜주며, 일체의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 주는 존재다. 몽골인이 화덕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불신이 좌정(坐定)한 화덕에 대해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금기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테면 화로에 오물을 넣어서도 안 되고, 우유나 물을 붓는 것은 물론 부젓가락으로 불을 쑤서서도 안 된다. 이런 규제와 금기의 규범은 현재의 몽골인에게도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몽골의 화제(火祭)는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닌 불의 신을 배웅하는 의례이다. 가는 때가 있으면 오는 때가 있는 법, 따라서 화신이 돌아오는 날도 역시 중요한 의례가 벌어진다. 선달 스무나흘에 하늘로 올라간 불의 신이 새해 한밤중에 천신들과 인사를 나눈 후 새벽녘에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 때 몽골인들은 불을 피워 불의 신을 맞고 불신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 이 날이 바로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차강사르'이다.

차강사르 때 불의 신을 맞는 의례를 행하는데, 이를 차강사르 어위제사라 한다. '어위'는 우리의 돌무지 서낭당과 같은 형태와 구실을 하는 민속 신앙물인데, 이곳에서 화신을 맞는 어위제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강사르 어위제사는 신년을 맞는 의례이면서 지상으로 돌아온 불의 신을 마중하는 의례라는 또 하나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화제(火祭)와 차강사르 어위제사는 불의 신을 보내고 맞는 틀 속에서 짝이 이루어지는 의례인 셈이다. 그러므로 몽골인들이 화제를 바가 차강사르, 곧 '작은 설(小正)'이라 부르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火祭

## 불에 대한 의례는 신년의례와 짝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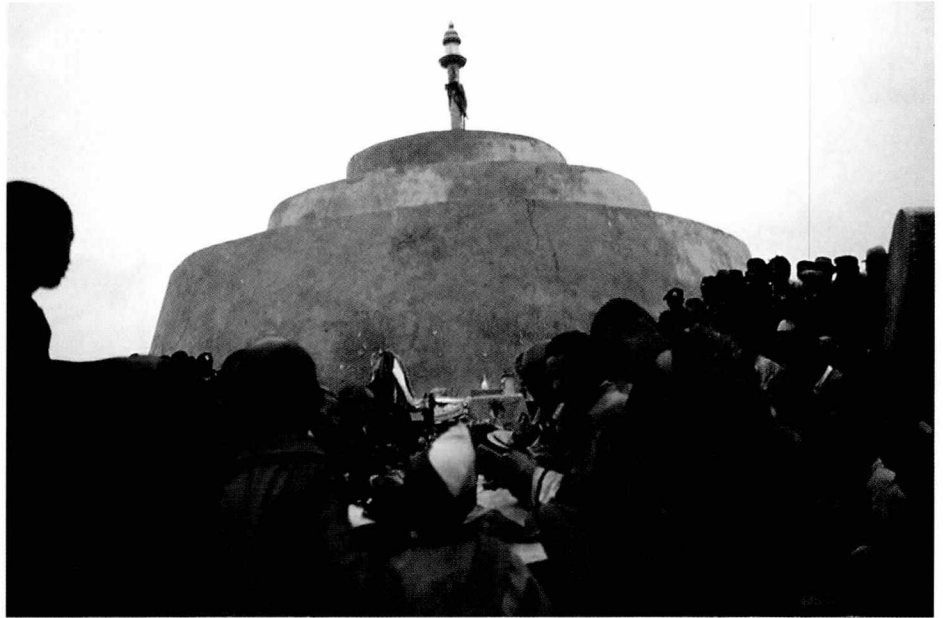
불의 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관념은 몽골 사람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두루 퍼져 있는 생각이다. 우리와 중국에서 불의 신을 조왕이라 칭하고 부엌에 모시는 부엌신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민속이다. 중국에서는 스무사흘날이나 스무나흘날이 가정신의 하나인 조왕신이 지상을 떠나는 날이다. 조왕신이 이 날 하늘로 올라갔다가 정초에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떠나는 날을 기려 특별한 의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초에는 돌아오는 조왕을 맞아 각종 제물을 쌓아놓고 풍성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조제라 한다. 조왕신에 대한 제사인 조제 역시 화제(火祭)라 부를 수 있어 몽골의 화제와 흡사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누구는 중국의 영향이라 하나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불신이 떠나는 날 특별한 의례를 한다는 점에서 화제(火祭)는 조제와 다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화제를 지내는 몽골의 풍습이 다양하다는 점을 차이점의 근거로 내놓을 수 있다. 몽골은 2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당연한 일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민속이 세부에서는 민족[부족]마다 다르다. 특히 화제를 지내는 시기가 다른 것은 중국의 조왕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몽골의 한 부족인 두르부드족은 10월에 화제를 지낸다. 에칭골의 토르고드족은 9월과 10월에 화제를 지내며, 외몽골의 바야드족은 11월 25일에 화제를 지낸다. 시기의 드러누이 있는데, 모두들 차강사르와 가까운 달에 화제를 지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흰 달'로 직역될 수 있는 몽골의 차강사르는 무엇일까. 오늘날 1월 1일이 차강사르인데, 그 내력을 따져보면 오늘과는 다른 본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몽골의 민속연구자에 의하면, 몽골족의 차강사르는 원래 가을에 지냈고 가을 음식인 흰 음식(이를 '차강이데'라 한다.)이 많은 달이라 하여 흰 달이라는 뜻의 차강사르가 붙여졌다 한다. 물론 흰 음식은 각종 유제품을 뜻하며, 양, 염소, 말, 소, 낙타의 오축(五畜)을 유목하며 사는 생활여건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들이다. 공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유제품인 흰 음식이 많은 달, 이 달을 맞아 특별한 의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몽골의 보리야드족은 19세기까지만 해도 고대의 역법에 따라 가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다 한다. 이에 따라 가축의 나이를 셀 때도 가을을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이런 관습은 오늘날에도 남아 보리야드족의 민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봄에 태어난 양을 한 살배기 양이라는 뜻으로 '보트고'라 하는데, 그해 가을이 되면 '톨록'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른다. 톨록은 두 살배기 양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나이를 거꾸 먹는 셈이다. 이는 곧 가을을 새해의 기점으로 볼 때 가능한 셈법이다. 다른 가축에도 이런 방식은 통용된다. 한살배기 송아지 '토갈'을 가을이 되면 두살배기 송아지라는 뜻으로 '바르'라 바꿔 부른다. 한살배기 망아지 '오나가'를 가을이 되면 '다가(두살배기 망아지)'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치다.

중국의 자치지역으로 전락해 버린 내몽골의 사례 가운데 매우 주목할 만한 불의 민속이 있다. 설달 그믐날 밤에 서북쪽, 혹은 여의치 않으면 바깥뜰에 모닥불을 피우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 과정에서 유제품과 고기를 불 속에 던진다. 화제(火祭)와 비슷한 양상의 의례인데, 특이한 것



보리야드족의 알란어위에서 승려들이 제를 지내고 있다.

은 이 때 쇠를 불리는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집안의 가장인 대주(大主)가 가느다란 쇠를 불 속에 넣어 달군 뒤 쇠모루 위에 놓고 쇠망치를 때려 쇠를 단련시키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철산을 녹여 거주지를 빠져 나온 몽골족의 고담(古談)을 구송한다. 돌궐족과의 싸움에서 패한 뒤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에루쿰네 쿤으로 피신하여 살다가 종족이 늘어나자 풀무로 철산(鐵山)을 녹여 길을 터 오논강, 헤를렐강, 툴강의 상류 지역으로 탈출하여 살게 되었다는 몽골민족의 기원신화다. 조상에 대한 장엄한 서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쇠를 단련시키는 것은 철산을 녹여 에루쿰네 쿤을 탈출한 그 때의 일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화적 재현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이 때의 화신은 곧 민족의 조상신 격에 버금가는 성격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런데 불신은 왜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가는 것일까. 신들이 특정 기간에 지상을 떠나 천상으로 간다는 사고는 불의 신만이 아니지만 대체적인 뜻은 일년 동안 지상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천상의 지고신(至高神)에게 보고하러 간다는 것이다.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보고한다는 것이고, 한해의 공과(功過)에 따라 상벌을 내려준다는 이치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옛 풍습에서 화덕에 엿을 붙여주는 민속이 행해졌는데, 이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화제(火祭)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고하러 떠나는 불의 신에게 당부하고 아부하는 의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불의 신을 환대해서 보낸다! 그렇다. 인간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불의 신에게 이런 의례를 벌인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몽골의 화신은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기본적인 신격을 지니면서 한편으로 신격이 확장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신을 하느님(天神)으로 부르는데, 이쯤 되면 신격이 매우 격상되고 화제 역시 격이 높아진 의례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제의 역시 천신에게 절하다는 뜻으로 '텡게르트 무르구흐'라 부른다.

# 天神

## 그 밖의 크고 작은 불에 대한 민속들

몽골 유목민들은 전통의 이동식 천막인 게르(ger)에 살며, 해마다 초지를 찾아 이동하고 많게는 네 다섯 번이나 이사를 한다. 그 때마다 게르의 중앙에 화덕을 놓았던 자리가 문제가 된다. 재를 깨끗이 처리한다거나 오물을 남기지 않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만약 화덕 자리를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남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탓이다. 자연을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화덕이 곧 가문의 계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화덕 처리가 이해되어야 한다. 이 점은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씻기는 민속에서도 잘 드러난다.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으로 씻길 때, 양의 목뼈와 양의 도가니뼈를 통째로 끓인 국물을 쓴다. 물론 뼈 국물을 산모에게 먹이고, 고기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두루 대접한다. 고기를 발라 먹은 뒤에는 뼈가 남기 마련이다. 이 때의 도가니뼈와 목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뼈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도가니뼈는 아이의 다리가 빨리 튼튼해져서 잘 걷는 데 도움을 주며, 목뼈는 아이의 목뼈가 단단해져서 고개를 빨리 가누게끔 하는 뼈다. 뼈에 이런 상징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소중한 뼈들을 잘 간직해 놓았다가 이사를 갈 때 화덕 자리를 파고 땅 속에 묻는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화신(火神)의 가호를 받으려는 뜻이다.

아이의 첫 옷을 해 입힐 때에도 불은 중요하다. 새 옷을 지을 때는 붉게 뜨는 아침 햇빛을 받으며 마지막 바느질을 끝내야 하고, 단춧고리와 단추를 달 때에는 반드시 화덕의 불에 쬐어 정결케 해야 한다. 옷의 본디 기능이 아이의 몸을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된 것을

게르의 중앙에 놓인 화로. 무당의 집이기에 촛불을 밝혔다.





무당이 점을 치기 전에 불을 붙여 부정기를 쫓는다.

털어내어 정화시키려는 뜻이다. 특히 단추는 옷을 여미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집으로 말하면 문의 구실을 하고, 금줄이나 엄나무 등을 문에 걸어 샅된 것의 침입을 막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마도 불을 켜 단추와 단춧고리는 음기(陰氣)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양기(陽氣)일 것이다.

혼례를 할 때에도 불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보리야드족이 행하는 혼례는 혼처를 정하고, 신부를 데려가고, 처가를 방문하고, 신부를 모셔가고, 혼례 잔치를 하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 제차 가운데 첫 날밤을 보낸 신부가 침대를 나온 후 처음 하는 일이 화덕에 불을 붙이는 일이다. 물론 신부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미리 화덕 안에 장작을 가득 넣어둔다. 불을 붙인 다음 신부는 화덕에 세 번 절을 해야 한다. 화덕에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집 가문의 새 가족이 되었음을 불의 신에게 알리는 것이다.

몽골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할흐족의 전통 혼례에서는 결혼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신부가 기름과 향초(香草)를 화덕의 불에 넣는다. 화덕에는 집안의 신이 존재하고, 화덕의 불이 꺼지는 것을 가계(家系)가 단절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름과 향초를 넣어 불을 세게 하는 것이다. 불을 세게 한다는 것은 집안의 평안과 자손의 번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날밤을 지낸 후에 일찍 일어난 신부가 화덕에 불을 붙여 차를 끓여 손님들을 대접한다.

불의 필요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불은 곧 짐승의 한 부류에 불과한 사람을 인간답게 하는 절대 요소다. 절로 외경을 지닌 신비한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불에 대한 의례가 발달하고, 마침내 다양한 신격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이다. 몽골 유목민의 삶을 통해 바라본 불에 대한 민속은, 그 양상과 모습이 다를지언정 본디 담고 있는 뜻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불에 대한 민속을 두루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간은 과연 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㉞

# 火神